

# 최인호 장편소설에 나타난 동아시아 사상 연구

## A Study on East Asian Thoughts in the Novels Written by Choi In-ho

음영철

삼육대학교 글로벌한국학과

Yeong-Cheol Eum(sangoma@syu.ac.kr)

### 요약

본 연구는 에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철학 이론을 인용하여 최인호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동아시아 사상을 탐구한 것이다.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형성되는 주체의 문제를 다룬 철학자이다. 연구자는 동아시아 사상이 근본적으로 타자와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레비나스의 책임윤리 이론을 인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인호의 『상도』에는 ‘타자의 사유’를 통한 주체와 타자의 진정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인간관계는 상선약수(上善若水)와 같은 것으로, 주체가 낮은 자세로 행할 때, 내 안에 ‘타자가 들어설 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최인호의 『유림』에는 타자를 섬기는 경(敬)사상을 통해 조선 성리학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이는 레비나스가 말한 ‘타인에 대한 책임의식’과 비슷하였다. 셋째, 최인호의 『길 없는 길』에는 한국 선불교의 핵심인 ‘진속불이(眞俗不二)’가 드러났다. 나라를 잃어버린 시대에 타자인 민중의 부름에 응답하였던 경허는, 레비나스가 말한 ‘내 안에 있는 타자’를 발견한 인간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최인호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상선약수(上善若水), 경(敬), 무애(無碍)와 같은 사상은 레비나스의 책임 윤리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동아시아의 윤리를 잘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 중심어 : | 동아시아 | 『상도』 | 『유림』 | 『길 없는 길』 | 최인호 | 책임 윤리학 |

### Abstract

In this paper, East Asian thoughts in Choi In-ho's novels have been studied based on Emmanuel Levinas' philosophical theories. He is a philosopher who dealt with the matter of subject formed through the encounter the others. The author of this paper quoted his ethics of responsibility, viewing that East-Asian thoughts put stress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others. The conclusions are like these; first, in the novel, Sang Do, there is a tru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thers thinking in the side of the other. Human relationship is like Sangsunyaksoo, which means when subject goes low, there appears a place the other can stay in. Second, in the novel Yoorim the essence of Neo-Confucianism shows up through Kyung thought, in which subject serves on the other in respect. That's like what Levinas said, "responsibility to others". Third, in the novel The Road without Road there appears Jinsokppuli, the central value of Korean Buddhists' Zen thoughts, meaning that you are not differentiated from me. In the times when the nation had been lost, Kyung Ho, who answered the call of people was a man who found what Levinas said, "the other who stays in me". As a conclusion the thoughts such as Sangsunyaksoo, Kyung, and Muae which show up in Choi In-ho's novels are connected with Levinas' ethics of responsibility and well shown as good examples of East Asian ethics.

■ keyword : | East Asia | Sang Do | Eurim | The Road without Road | Choi In-ho | Ethics of Responsibility |

\* 본 연구는 삼육대학교 2017년 교내공모과제에 의해 씌어짐

접수일자 : 2018년 06월 18일

수정일자 : 2018년 07월 17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7월 17일

교신저자 : 음영철, e-mail : sangoma@syu.ac.kr

## 1. 서론

동아시아는 현재 탈냉전과 탈근대라는 이중구조의 장벽 앞에서 있다. 탈냉전이라 함은 이념의 시대에 사로잡힌 과거의 유제인 배타적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잔재로부터 자유로워짐을 말한다. 달리 보자면, 동아시아인이 극복해야 할 이중과제는 중국의 중화주의와 일본의 아시아주의를 지양하는 것이다. 탈근대라 함은 근대 주체에서 배제되어왔던 타자를 새롭게 인식하여 '새로운 주체'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1세기에 사는 동아시아인들에게는 유럽 중심주의를 극복한 탈중심화된 상상지리(imaginative geography)가 필요한 시점이다[1].

동아시아인은 새로운 미래를 논하기에 앞서 현재까지의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근대 이전에 중국은 동아시아의 맹주로 대제국을 건설하였고, 그 중심 이념으로 중화주의를 내세웠다. 중화주의는 중국 사람이 자기 민족을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꾀하는 사상이다. 중국의 중화주의 사상은 근대로의 전환기인 19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약화된다. 그 예증이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이다. 청나라는 서구문명을 대표하는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하면서 아시아의 중주국이라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게다가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한 중국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하였다. 서구의 근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일본은 오리엔탈리즘의 변형인 아시아주의를 내세우면서 아시아를 '동양'으로 바꾸고, 중국을 '지나'로 표기하면서 20세기 초에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것이다. 그 중심에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1885년에 발표한 탈아입구론(脫亞入歐論)이 있다[2]. 일본은 전근대적 사유체계인 중국의 중화주의에서 탈피하여 서유럽의 제국주의를 모방하였다. 이로 인해 20세기 초 동아시아는 일본이 패권을 쥐게 되었다[3]. 그러나 주변 국가를 무력으로 점령한 일본 제국주의는 태평양전쟁의 패망으로 막을 내렸다.

21세기에 사는 동아시아인들은 중국과 일본의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기를 창출해야 한다. 서구의 근대를 추동한 과학과 진보에 대한 거대담

론은 이제 동아시아의 정신문명과 융합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4]. 이 과정에서 타자를 소외시키는 근대 주체성의 철학은 차이가 아닌 차별을 낳았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실을 염두에 두지 않는 동아시아의 정신문명은 이제 군자의 윤리덕을 강조한 관념의 형이상학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를 함유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는 현재 문명의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이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사상을 점검하는 것은 동서양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탈냉전과 탈근대의 역사 담론은 동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서구 문명은 미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제국의 폭력과 인종주의에 간혀 있다. 근대 과학의 산물인 기계문명과 그로 인한 자본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재한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동아시아는 민주주의 체제를 숙성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는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윤리적 전통이 남아있다. 이는 레비나스가 말한 '타자의 사유'를 통한 온전한 주체 형성의 매트릭스가 삶의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과학과 기술에 뿌리를 두고 모든 존재를 인간 주체의 권력에 종속시킨 '주체성의 철학' 전통이 남아 있는 서구는 니체와 하이데거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보여 주었으나 여전히 탈근대의 경계에 머물고 있다[5].

연구자는 탈냉전과 탈근대의 시대정신을 선도할 새로운 계기를 동아시아 문화 공동체에서 찾고자 한다. 물론 동아시아는 여전히 배타적 민족주의가 강하게 남아있다. 이제까지의 동아시아 담론이 중화주의와 동양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실제로는 민족에 기초한 자국 중심의 사유였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한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동아시아 정치와 경제 담론이 미국의 간섭에 따른 자국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것이기에 진정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이룰 수 없었다.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야 할 21세기 동아시아 사상의 상상지리는 아시아·아프리카 연대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과 응전을 포함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작가 최인호는 장편소설을 통해 '타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문화

공동체가 성찰해야 할 타자성을 충분히 담고 있다.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의 정체성은 타자를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 최인호의 장편소설에는 동아시아의 전통사상인 유불선 삼교사상이 잘 드러난다. 『상도』·『유림』·『길 없는 길』에는 타인과의 윤리적 관계를 통해 도교·유교·불교사상이 혼용되어 있다. 연구자는 이들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최인호가 제시한 동아시아 사상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논하고자 한다.

## II.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자는 최인호의 장편소설을 통해 21세기에 살고 있는 세계인이 공유해야 할 가치 중에 하나로 동아시아 사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아시아는 예로부터 유불선 삼교사상이 중심이 된 문화 공동체를 이루어 왔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동아시아인은 서구화로 인해 인식론적 단절을 겪었다. 서구의 근대를 따라간 결과 산업화의 성취를 이뤄낸 반면, 근대 이성주체 신화에 매몰되면서 정신문명의 빈곤을 경험하였다. 이제 동아시아인들은 동서양 사상을 융합할 수 있는 변증법적 사유를 통해 새로운 동아시아 사상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다.

연구자는 연구방법론으로는 타자를 주체 구성에서 중요한 계기로 삼은 에마누엘 레비나스의 철학을 원용할 것이다. 레비나스는 타자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유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니체가 근대서양철학을 부정하고자 했다면 그는 타자의 사유를 통해 주체를 새롭게 세우고자 했다. 사르트르가 20세의 역사를 해석하면서 ‘타자는 지옥’이라 했을 때, 그는 타자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사회의 근본악을 넘어서고자 했다. 동아시아가 자본주의의 병폐인 소유 욕망과 경쟁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주체와 타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연구자는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최인호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인물들을 중심으로 주체와 타자가 어떻게 윤리적 관계를 맺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레비나스는 인간의 욕망은 타자와의 열린 관계를 통해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얼굴의 현현’ 이론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물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 즉 참된 인간성의 차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상도』를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레비나스가 언급한 ‘타자가 들어설 자리’라든지 ‘타자가 주인’이라는 사상이 도교 사상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둘째, 레비나스는 환대로서의 주체성을 논하면서 주체가 타자의 출현을 통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타자에 대해 책임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유가의 경(敬) 사상을 탐구하기 위해 『유림』의 대표적인 인물인 조광조와 이황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조광조의 지치주의(至治主義)가 어떻게 퇴계 이황의 유가사상인 경학(敬學)으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논구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사상이 레비나스가 발견한 ‘타인에 대한 책임’과 연결될 수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는 타인을 위해 고통받고, 타인을 위해 대신 설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인호의 『길 없는 길』에 나타난 경허란 인물은 타인을 위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준다. 연구자는 그가 보여준 불교의 선사상이 무애(無碍)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할 것이다. 근대 사상의 한 축인 자유의 실체가 동아시아의 선사상인 무애로 완성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이 과정에서 레비나스가 제시한 ‘응답하는 자’와 ‘내 안에 있는 타자’ 개념을 적절히 활용할 것이다. 연구자는 유불선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사상 연구가 21세기에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 본다.

## III. 『상도』에 나타난 도교의 상선약수

최인호의 도교사상이 잘 드러난 『상도』의 중심인물은 임상옥이다[6]. 2백여 년 전에 실존했던 인물 임상옥(林尙沃)은 신라 시대의 장보고 이후 조선시대 최고 의 무역왕이자 거상이었다. 그는 상업의 도(道)에 해당

하는 ‘財上平如水 人中直似衡’이란 명언을 남긴 인물이 다. “재산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는 이 말은 인간이 욕심을 버리고 이(利)가 아닌 의(義)를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최인호는 임상옥을 통해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인이 당면한 사회적 딜레마를 풀 수 있는 대안으로 ‘의(義)’를 제시한다.

장편소설 『상도』에는 다양한 인물군상이 나온다. 임상옥, 홍경래, 김정희, 이석현과 같은 역사적 인물도 있고, 김기섭과 같은 허구적 인물도 있다. 자동차 기업 회장 김기섭은 호가 ‘여수(如水)’인 것으로 보아 도가의 상선약수와 관련된다. 주인공 ‘나’가 석전(石田) 이석현(李錫玄)을 찾아가 ‘가포집(稼圃集)’의 소유자를 물었을 때, 석전은 상도(商道)를 이룬 인물이 임상옥임을 알려 준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도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한다. 이는 노자가 말한 ‘道可道非常道’에서 따온 것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도의 본체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상도』에서 보여준 도가사상의 정수는 무엇인가. 임상옥은 스승 석승으로부터 세 개의 유물을 받는다. ‘사(死)자’와 ‘정(鼎)’자란 글씨가 적힌 종이와 ‘계영배(戒盈杯)’란 술잔이 그것이다. 임상옥은 난관에 부딪칠 때마다 스승이 전해준 유물로 이를 극복하게 되는데 소설 『상도』는 이들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임상옥은 아버지 임부행의 가르침에 따라 역관을 꿈꾼 인물이다. 그런 그가 연경 흥동가에서 장미령이라는 여인을 만난다. 임상옥은 석승 스님이 가르쳐 준대로 ‘활인도(活人道)’를 실천한다. 은 5백 냥이라는 몸값을 지불하고 장미령에게 자유를 준 것이다. 임상옥이 장미령의 몸값을 지불한 것은 살려주기 위함이었지 소유하기 위함은 아닌 것이다. “임상옥이 장미령의 몸을 사서 그녀를 자유의 몸으로 살려준 것도 이(利)를 남기기보다 의(義)를 좇으려는” 그의 상도 때문이었다.”[6].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와 일맥상통하고 『논어』에서 일컫는 ‘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와 어울리는 말이다. 레비나스는 “응답, 환대 또는 책임은 ‘줍le donner’이고 ‘자신을 희생함un s’offrir’이라 했다 [5]. 임상옥은 장미령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공금 횡령에 따른 고통을 당한다. 그것이 의주 상계에서 추방되

는 파문선고이다.

임상옥의 첫 번째 위기는 동지사(冬至使)를 따라 연경으로 인삼 장사를 하러 갔을 때 일어난다. 5천근의 질 좋은 홍삼을 갖고 간 임상옥은 그곳에서 연경의 약재상들이 불매동맹을 맺고 조선의 인삼을 헐값으로 매입하려는 상황에 직면한다. 임상옥은 당대 최고의 학자인 추사 김정희로부터 ‘必死即生 必生即死’란 문장을 받게 되고 큰 깨달음을 얻어 ‘의(義)’를 실행한다. 그것이 인삼을 종전 가격의 네다섯 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고 판 사건이다. 임상옥은 연경 상인들의 불매동맹을 기묘한 방법으로 물리친 것이다. 석승의 가르침대로 홍삼의 일부를 ‘불태움(死)’으로써 보다 큰 ‘값(生)’에 홍삼을 판 것이다. 레비나스는 유한의 경험으로부터 유한을 부정하여 얻어낸 것이 무한성이라 했다[5]. 임상옥은 불매동맹의 부당성을 홍삼을 불태움으로써 보여준 것이다.

임상옥에게 닥친 두 번째 위기는 홍경래와 연관된 것이다. 홍경래는 역성혁명을 꿈꾼 역사적 인물이다. 이 소설에서 홍경래는 혁명의 거사를 앞두고 임상옥을 혁명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상가의 서기로 들어간다. 홍경래로부터 혁명군이 되라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받고 임상옥은 석승 스님이 건네준 ‘정(鼎)’이란 글자를 떠올린다. 그것은 ‘정혁(鼎革)’을 뜻하는 말로, 역성혁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임상옥은 김정호로부터 술의 크기와 무게를 지탱하는 세 개의 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 어진 대화를 통해 임상옥은 인간에게 있는 세 개의 욕망인 명예욕, 지위욕, 재물욕의 허망함을 깨닫는다. 이는 도가삼서 중의 하나인 열자(列子)에게서 온 말로 둔인(遁人)이 아닌 순민(順民)이 되는 것이다. 이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정치관의 하나로 무지, 무욕, 무위와 상통하는 말이기도 하다[7]. 임상옥은 홍경래에게 조선왕조 제일의 거부가 된 것으로 만족할 뿐, 권력의 욕망을 이루려는 뜻이 없음을 분명히 전함으로써 목숨을 보존한다.

임상옥을 살린 마지막 상징 기물은 ‘계영배’이다. 임상옥은 권력 의지로 가득 찬 조만영의 인적인 조상영을 만나면서 건곤일척의 기로에 서게 된다. 계영배에는 “가득 채워 마시지 말기를 바라며 너와 함께 죽기를 원한다.”는 여덟 글자 ‘戒盈祈願 與爾同死’에서 알 수 있듯

이 욕망을 버림으로써 채워지는 이치가 담겨 있다. 다시 말해 계영배는 인간의 욕망을 꾸짖고 경책하는 술잔이다. 인간은 결핍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삶을 소비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욕망은 끝이 없다. 주체성의 철학이 의식 주체에게 자유를 가져다주었지만, 주체가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주체는 자기분열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사유’만이 진정한 주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5].

임상옥은 칠십 평생을 살아오면서 스승이 남긴 유물을 통해 세 번의 죽을 고비를 극복한다. ‘사(死)’와 ‘정(鼎)’ 그리고 ‘계영배’가 그것이다. 그러나 자연인 임상옥의 시련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소유 욕망이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운과 명운이 다하는 경지에서 임상옥이 깨달은 것은 무소유이다. 임상옥은 박종일에게 명하여 부채인(負債人)들의 빚을 탕감시켜 준다. 게다가 돌아가는 상인들에게 급과나 은괴한 덩어리씩을 들려서 집으로 돌려보낸다. 임상옥이 깨달은 상도는 재물이란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어서 일시적으로는 가둘 수는 있지만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도덕경』 제8장에 나온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상선약수(上善若水)의 발현이라 할 것이다[8].

최인호의 『상도』에는 레비나스가 언급한 주체가 타자와 맺는 진정한 관계를 보여준다. 그 정수는 소유가 아닌 비움이다. 불매동맹을 깬 것도 장미령에게 자유를 준 것도 흥경래로부터 목숨을 건진 것도 모두 상선약수와 같은 물의 흐름을 깨달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임상옥이 깨달은 상업지도(商業之道)란 결국 상선약수(上善若水)와 같은 것으로 모든 관계는 순환하고 소유할 수 없다는 데 있다.

#### IV. 『유림』에 나타난 경(敬)사상

최인호는 『유림』 책머리에서 우리 민족의 핏속을 흐르는 또 하나의 원형질인 유교를 통해 우리의 민족성을 과해지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하였다[9]. 작가가 이 소설을 구상한 시기는 1990년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냉전 구조의 해체와 사회주의권의 몰락, 유교문화

를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위기의식이 급속히 팽창하던 시대였다[10]. 이 시기에 동아시아는 서구의 충격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문명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두고 많은 담론들을 쏟아냈다[11]. 이러한 시대에 작가 최인호가 매달린 전통 사상으로서의 유교란 무엇인가. 이 장에서는 소설 『유림』의 중심인물인 조광조, 이황을 중심으로 유가사상의 진수를 살피고자 한다[12].

조광조는 성종 13년인 1482년에 태어나 중종 14년인 1519년에 죽은 정치개혁자이다. 조광조는 부패한 정치를 바로잡으려다가 사약을 받고 죽은 이상주의자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종교로서의 유교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자신을 바친 순교자이기 때문이다[13]. 그가 만들 고자 했던 나라는 이 소설에서 자세히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유가사상임을 알 수 있다. 작가 최인호가 조광조를 통해 보여준 경제지략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사상이 될 수 있다. 논의를 좁혀 말하자면, 조선의 성리학은 동아시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함의를 품고 있는 것이다.

조광조의 정치사상은 지치주의(至治主義)라 할 수 있다. 지치주의란 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합일체를 말한 것으로, 조광조가 펼친 개혁의 근본정신을 담고 있다[9]. 조광조는 평생 공자를 존경하였으며 그의 뜻에 따라 철인정치를 펴고자 했다. 그가 말한 정치는 원칙과 명분을 강조한 정명주의(正明主義)이다. 동아시아 정치사상은 명분과 원칙을 기저에 두고 있다. 그것은 공자의 유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정신이다. 그러나 조광조는 중종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써 공자의 왕도를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실패한 이상주의자가 된다.

조광조는 스승 한훤당 김굉필로부터 유교사상을 전수받았다. 조광조는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라는 공자의 사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14]. 그 스승과 마찬가지로 조광조는 선비로써 지켜야 할 ‘한빙계’를 따라 주체적으로 살다가 대역죄인이 되어 사사되었다. 스승이 남겨준 지치주의는 ‘하늘과 사람은 그 근본됨이 하나’라는 것이다[9]. 수양을 통해서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상은 현인군자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유교적 이상주의는 훈구파의 반대로 인해 실패한다. 레비나스도 나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대상을 타자라 하였다. 동아시아인이 지향할 타자란 타인을 수단화하는 민족주의를 벗어나 나와 타자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른바 화이부동의 견지에서 추구할 트랜스내셔널리즘인 것이다[15].

조광조보다 18년 늦게 태어난 퇴계 이황은 공자의 학문과 사상을 발전시킨 동양 최고의 학자이다. 퇴계는 21세기 유교문화권의 현자로 볼 수 있다. 오늘날 퇴계는 중국에서는 이부자(李夫子)라 불리우며, 일본에서는 '제2의 왕인(王仁)'이라고 불릴 만큼 동아시아 정신사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그는 동시대의 스승으로서 나이를 초월하여 학문을 전수하고, 유가사상을 남긴 위대한 인간이었던 것이다. 그는 유가의 완성자로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위대한 철인이기도 하다.

이황을 두고 '매처학자(梅妻鶴子)'라고 한 것은 그가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자식처럼 길렀기 때문이다. 벼슬에서 물러나 아내도 없이 오직 매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다간 그는 청빈한 선비로서의 모습 그대로이다. 유가사상은 해동의 퇴계에 이르러 매듭지어진다고 할 수 있다. 조광조가 공자가 실패한 부분을 실천하고자 했던 행동주의자였다면, 이퇴계는 공자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킨 사유주의자라 할 것이다[9].

이퇴계와 기생 두향과의 사랑은 시공을 초월한다. 퇴계는 나이 48세 때에 청송과 이웃한 단양에 군수로 부임한다. 불과 9개월간의 짧은 재임 시절에 그는 두향과 상사(相思)로 맺어진다. 해동공자(海東孔子)로 불렸던 이황은 나이 50세에 이르러 불멸의 사랑을 남긴 것이다. 두향은 이퇴계가 70세에 숨을 거둘 때까지 22년간을 수절하였다고 한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플라토닉 러브의 환생이다. 이황은 옛 성인을 그리워하듯이 사랑에 대해서도 육체를 초월한 정신적인 사랑을 추구한 것이다. 이 또한 극기의 시험인 체인(體認)이라 할 것이다. 레비나스는 타인을 수용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주체됨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5]. 퇴계와 두향이 정신적인 사랑도 따지고 보면 응답하고 환대하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퇴계가 평생을 두고 고심한 화두는 '이(理)'란 글자이다. 『논어』에도 나오는 '이'란 단어는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다. 사물의 이치와 법칙을 추구하는 이학(理學)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퇴계가 발견한 '이'는 '모든 사물이 마땅히 그래야할 '시(是)'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자의 오상을 뛰어넘어 성리학으로 완성된다. 공자가 인(仁)을 통해 인간윤리를 강조했다면, 퇴계는 '이'를 통해 공자를 넘어서고자 했던 것이다. 맹자에 의해 이름 붙여진 이(理) 사상은 퇴계에 의해 완성된다.

공자의 인(仁) 사상을 계승한 맹자가 성선설에 기초해 도덕 실천 철학을 보여준 것이 사단설이다. 주자는 맹자가 주장한 사단을 이의 발현으로, 철정을 기의 발현으로 설명하면서 이 둘을 구분하였다. 이기론은 유교를 수양의 도리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인간의 심성 문제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최인호는 소설 『유림』을 통해 퇴계와 고봉 간에 오고간 4년 동안의 논쟁을 주자의 우주론을 끌어들이어 설명한다. 서구의 근대철학이 플라톤에서 시원한 이분법적 세계관을 계승하여 이성과 광기의 구분을 가져왔다면, 이황은 고봉과의 대화를 통해 '이기이원론'을 완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구의 이분법적 세계관을 뛰어 넘는다. 그것이 "이(理)라는 원리 없이 기(氣)가 있을 수 없으며, 기 없이 또한 이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는 통찰이다[9].

퇴계는 성리학을 경학(敬學)이라고까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퇴계가 말한 경(敬)은 문자 그대로 사물을 공경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극히 섬기는 것을 뜻한다. 퇴계가 46년간 고심한 끝에 깨달은 경이야말로 조선 성리학의 진수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레비나스가 말한 책임 윤리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타인에 의한 책임', 곧 타인이 나에게 일깨워준 책임은 나를 움직이고, 살아 있게 만들며, 나를 고귀한 영적 존재로 만든다."라고 하였다[5]. 퇴계의 '경(敬)'사상이 서양 탈근대 철학의 거두 레비나스에 의한 '타인에 대한 책임'과 만난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타자' 또는 '동일자 안의 타자'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 V. 『길 없는 길』에 나타난 무애(無碍)사상

최인호는 1987년에 가톨릭에 귀의하였으나 80년대 말 무렵부터는 수도자나 스님이 되어 구도의 길을 걷고자 했다. 최인호는 1989년부터 3년간에 걸쳐 『길 없는 길』을 중앙일보에 연재하였다[16]. 최인호는 이야기의 형식을 무시하면서까지 이 소설을 통해 경허 스님의 구도의 여정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최인호는 소설 『길 없는 길』에서 경허의 기행적인 삶을 추적하면서 무애사상의 실체를 보여준다. 무애(無碍)란 어디에도 막히거나 걸림이 없는 자유인의 경지를 말한다. 근대 주체성의 철학이 중국에는 자유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도 자본주의에 따른 사회모순으로 인하여 폭력과 인종주의에 따른 자기분열을 가져왔다. 경허가 산중 불교를 타파하고 거리고 들어가 무애행을 실천한 이유를 살펴보자.

이 소설은 고종 16년인 1879년을 배경으로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된다. 경허가 살았던 시대인 19세기 후반 국내 상황은 민정이 극도로 어지러웠다. 진주, 익산, 개령, 함평 등지에서 민란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국외 상황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열강들의 각축이 심해졌고, 프랑스·미국·영국 등과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문호개방 요구는 심해졌다. 결국 1876년 병자수호조약 체결,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 등으로 조선은 외교권을 빼앗기고, 1910년 일제에 의해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가 된다. 1910년은 경허가 입적(入寂)을 2년 앞둔 시기였다[17].

경허는 시국이 어지러운 때에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다. 그는 청계산에 잠시 머물렀으며 그곳에서 선비 박 처사의 제자가 된다. 박처사는 경허에게 유가 경전을 가르쳤고 그는 한여름 동안 이를 깨우친다. 그가 스승의 부름을 받고 한양으로 가는 길에 깨달은 것은 불교의 경전과 교리가 결국 생로병사의 고통에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경허는 “대장경이 진리의 물 앞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그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16]. 이는 화엄의 세계와 선의 세계가 다르지 않지만 화엄은 ‘알음알이’를 통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18].

불심(佛心)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경허는 묵언수행

을 하며 1,700개의 화두에 매달린다. 선불교의 불꽃이 200년 전에 끄긴 데서 다시 타오르게 해야 했기 때문이다. 경허는 부처로부터 시작된 불교의 선사상이 달마를 거쳐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신라의 고승 원효와 임제에 이르는 시기까지 선불교의 역사를 통달하고, 1,700개의 공안을 타파하기 위해 고행을 한다. 그가 참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남긴 화두 하나가 ‘당나귀 일 말의 일(驢事馬事)’이다. 이 화두는 경허가 옛 은사를 만나기 위해 길에서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과 연관된다.

“소가 되어도 고삐 뚫을 구멍조차 없다”는 여사마사(驢事馬事)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현실세상의 일로 갈피를 잡지 못한 경허에게 활연대오를 가져다 준 화두였다. 이 화두를 두고 두 가지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다. 여사(驢事)와 마사(馬事)를 대조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나귀가 12간지에 나오지 않기에 여사를 비실재의 시공간으로 보고 마사를 실재하는 현재로 본다. 반면 여사(驢事)와 마사(馬事)를 병렬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 둘이 일상적인 일을 말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불법이란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이다. 경허는 난세에 시달리는 중생을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승려로서는 마지막인 해인사 시절, 경허는 나병환자 여인을 돌보면서 무애행의 극치를 보여준다. 열흘 가까이 경허는 나병에 걸린 미친 여인과 한 방에서 지낸 것이다. 경허는 추위로 인해 죽어 가던 여인을 기사회생시킨 것이다. 경허가 비록 광녀일지라도 아픈 중생을 가까이 하고자 했던 것은 누구도 꺼려하는 미친한 여인에 대한 연민 때문이다. 경허는 여인에게서 색(色)이 아닌 법신(法身)을 본 것이다. 레비나스는 고통이 ‘이성과 정신적 극치의 대가’라 하였으며, 인간은 고통을 통해 성품이 단련된다고 보았다.

경허는 승려 생활을 버리고 이름을 숨긴 채 민촌으로 간다. 그곳에서 경허는 화광동진(和光同塵)을 몸소 실천하고자 했다. 경허는 민중과 함께 살다가 죽는 것이다. 작가 최인호는 경허의 마지막 7년의 삶을 복송 때의 도승 광암 스님이 지은 ‘십우도’에 비유했다. 경허는 십우도의 마지막인 ‘입전수수(入塵垂手)’를 결행한 것이다. 경허의 파계승적 면모의 일단을 두고 한국 불교계

는 평가가 엇갈린다. 이능화는 마설(魔設)이라 하여 폄하하는 반면, 최병헌은 선의 부흥을 위한 것이었다며 국가 정치적 상황과 불교계의 풍토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17]. 장자풍의 선도 영향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13]. 그러나 경허가 말년에 경험한 조선의 비참한 식민지 현실은 그로 하여금 구도의 참된 뜻이 중생 계도에 이르게 한 결정적 계기로 봐야 할 것이다.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해 망국이 되어 버린 시대에 경허는 훈몽(訓蒙)이라는 직업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경허는 김탁의 집에 머물면서 우국지사들과 사귀었는데 훗날 이들은 3·1운동이 일어나자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동하였다[16]. 경허가 인생의 마지막을 서당을 중심으로 모여든 선비들과 함께 한 것은 애국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경허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고통 받는 민중을 외면할 수 없어 자신의 이름마저 감추고 시가지에 들어선 것이다. 그는 원효처럼 절이 아닌 거리에서 중생을 위해 무애행을 실천한 것이다.

경허의 무애사상이 21세기에도 활용될 수 있는 근거는 한국 불교의 선사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인호가 경허를 '근대 선맥을 이은 대선사'로 적극 평가한 것은 성숙이원론을 부정하였기 때문이다[13]. 불이론적 시각은 내가 너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개방적인 동시에 적극적인 사유방식이다. 레비나스의 사유도 이에 벗어나지 않는다. 주체 안에 타자가 있기에 책임을 갖는다는 것이다. 나라를 잃어버린 시대에 타자인 민중의 부름에 응답하고자 했던 경허야말로 '내 안에 있는 타자'를 무애행을 통해 살리고자 했던 주체적인 인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중과 함께 한 경허는 레비나스가 말한 책임윤리학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19].

## VI. 결론

본 연구는 주체와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 회복을 통해 책임 윤리학의 길을 제시한 레비나스의 이론을 원용하여 최인호의 장편소설인 『상도』·『유림』·『길 없

는 길』에 나타난 동아시아 사상을 고찰한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특정 작품을 중심으로 한 종교성 탐구와 달리 최인호의 장편소설로 종합한 연구이다[20]. 유불선 삼교사상은 동아시아 사상의 정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동아시아인들의 정신에 내면화되어 있다. 유럽 중심주의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동아시아 사상 연구는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21].

최인호는 오래된 미래라 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유불선 삼교사상을 장편소설의 형식으로 담아낸 작가이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도』에는 도가사상의 정수인 상선약수(上善若水)가 작품 곳곳에서 나타난다. 임상옥은 '財上平如水 人中直似衡'이란 상도를 제시한 인물이다. 실존 인물이기도 한 그는 석승 스님이 남긴 유물을 통해 무소유를 실천한다. 홍삼의 일부를 불태움으로써 조선의 인삼을 살리고, 홍경래의 역성혁명 권유를 『도덕경』에서 강조된 '무욕'으로 극복한다. 임상옥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이 흐르는 물에 불과함을 깨닫자 이웃에게 나눠준다. 욕망에 사로잡힌 주체는 타자를 소유하고자 한다. 임상옥은 순환하는 자연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 무소유를 실천한 인물이다.

『유림』은 유가사상의 진수가 잘 드러난 장편소설이다. 조광조와 이황을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 조광조는 지치주의(至治主義)에 해당하는 현인군자, 사기진작, 개혁정신, 열린언론을 강조했으나 중종에 의해 배척된 이상주의자이다. 조광조의 유가사상을 계승한 이황은 주자의 성리학을 발전시켜 '이학(理學)'으로 집대성한다. 그 정수에 해당하는 것이 '경(敬)사상'이다. '경'은 타자를 공경하고 겸손한 마음을 섬기는 뜻을 담고 있다. 레비나스의 '내 안에 있는 타자'에 해당하는 말이기도 한다. 그 타자를 발견하고 섬기는 '경사상'은 오늘날의 윤리학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길 없는 길』에 나타난 불교사상은 무애(無碍)사상이다. 중심인물인 경허는 불심(佛心)의 세계로 들어가 1,700개의 공안을 화두로 삼아 고행을 거듭하다가 화두 하나를 일생의 목표로 삼는다. 그것이 여사마사(驢事馬事)이다. 불법이 대장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 그는 십우도의 마지막인 ‘입전수 수(入塵垂手)’를 결행하기 위해 민촌으로 들어가 그의 남은 7년의 삶을 불태운다.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살리기 위한 무애행의 실체를 보여준 것이다. 이는 레비나스가 강조한 책임 윤리학에 다름 아니다.

참 고 문 헌

[1] 도진순, 문중양, 심경호, 김기봉, 정진홍, 전경수, *동서양의 문명과 한국*, 민음사, 2014.  
 [2] 김기봉, *역사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만들기*, 푸른역사, 2006.  
 [3] 이명수, 이상봉, “동아시아 근대 중심주의의 성찰,” *한국사상과 문화*, 제49집, pp.272-408, 2009.  
 [4] 김기봉, *히스토리야, 쿠오바디스*, 서해문집, 2016.  
 [5] 강영안, *타인이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6] 최인호, *상도*, 여백미디어, 2000.  
 [7] 곽양, *최인호의 『상도』에 나타난 도가사상 노자의 『도덕경』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8] 노자, 문성재 옮김, *도덕경*, 책미래, 2014.  
 [9] 최인호, *유림*, 열림원, 2006.  
 [10] 김교빈, “한국의 동아시아공동체론: 동양철학의 관점으로 본 동아시아공동체론,” *오늘의 동양사상*, 제15집, pp.113-128, 2006.  
 [11] 장인성, “한국의 동아시아론과 동아시아 정체성,” *세계정치*, 제26집, 제2호, pp.3-26, 2005.  
 [12] 음영철, “최인호의 『유림』에 나타난 유가사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5집, pp.397-398, 2017.  
 [13] 황경훈, “최인호 소설의 종교성 탐구: 『길 없는 길』과 『유림』을 중심으로,” *신학전망*, 192집, pp.153-192, 2016.  
 [14] 공자, 김용옥, *논어한글역주3*, 통나무, 2008.  
 [15] 신현승, “동아시아 근대사상의 내셔널리즘과 트랜스내셔널리즘-한중일 근대사상의 비교를 중심

으로-,” *일본사상*, 제20집, pp.155-177, 1011.

[16] 최인호, *길 없는 길*, 여백, 2002.  
 [17] 강태선, *경희의 수행상에 대한 연구-최인호의 『길 없는 길』의 경희 수행상 형상화를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10.  
 [18] 김방룡, “경희성우의 선사상과 불교사적 위상,” *동서철학연구*, 제72집, pp.219-242, 2014.  
 [19]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20] 음영철, “최인호의 『상도』에 나타난 동아시아 사상,”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5집, pp.157-158, 2017.  
 [21] 박인규, “KBS 다큐멘터리의 세계화 프로젝트 ‘인사이트아시아’, 그 의미와 평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1호, pp.510-524, 2016.

저 자 소 개

음 영 철(Yeong-Cheol Eum)

정희원



- 1998년 2월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문학석사)
- 2011년 2월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글로벌한국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문화 콘텐츠, 교육, 보건